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오늘 2024 년 3 월 26 일 15:15 에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에서
올리야나 마리아 로사리아 디 비르질리오 수녀님이
84 세 57 년 수도생활을 마치고 선종하셨습니다.

성주간 화요일에 시편 저자는 “주님, 저는 당신께 피신합니다.”라고 합니다. 로사리아 수녀님은 긴 고통의 나날을 지낸 후 사목적 직무의 정점인 내적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였습니다.

올리야나 수녀님은 1939 년 3 월 30 일 치따뚜칼레에서 태어나 같은 해 백성의 성 마리아께 봉헌된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1964 년 9 월 3 일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으로 입회하였고, 1965 년 9 월 2 일 에 수련기를 시작하였습니다. 1966 년 9 월 3 일 마리아 로사리아라는 수도명으로 종신서원을 합니다. 첫서원 후 코리날도 공동체로 파견되었고, 5 년후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으로 들어와 1971 년 9 월 3 일 종신서원을 합니다.

로사리아 수녀님은 초기 양성기부터 기도의 사람, 영적 작업에 열심한 사람, 책임감 있고 모든 이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 단순하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잘 하였고, 사회성이 있고 모든 이와 친절하게 대하였습니다. 사목사명에서 창의력이 있고 열정적이었으며 첫서원과 종신서원 때 선교를 원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종신서원후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에서 면학기를 보냈습니다. 로사리아 수녀님은 몇몇 공동체에서 원장으로 봉사하였고, 교리와 사목 일꾼들 양성과 가정 사목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1973 년 메돌라, 1974 년 카스텔라마레 성 안토니오, 1982 년 페스카라, 1994 년 약사 수련소 공동체, 1998 년 페스카라 그리고 2022 년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에 들어와 얼마 안 있어 갑자기 심각한 뇌출혈이 발견되었습니다.

수녀님들은 로사리아 수녀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수녀님은 모든 이를 잘 받아들였는데,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도 잘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사목적인 깊은 감각과 사제들과 수녀들과 평신도들과 협력하고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례의 표징, 꽃꽂이, 모든 환경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사목에 대하여 다양한 경험을 알고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같은 본당의 어린이집에서 머물렀음에도 사도직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며 변화에 적응할 줄 알았고, 타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위하여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설 줄도 알았습니다. 선하고 섬세한 영혼이었고, 의지가 강하고 개인 기도와 공동기도를 사랑하였고, 말씀을 깊이 경청하며 머물렀습니다.

로사리아 수녀님의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수녀님을 위하여 힘들게 지속되는 어려운 돌봄을 사랑과 관대함과 인내로 도와주신 알바노 공동체의 수녀님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로사리아 수녀님을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에 맡겨드리며, 빠스또렐라로서 사목적 직무를 열정적이고 창의력 있게 산 수녀님의 삶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로사리아 수녀님 성소자들과 평화의 선물을 중재해 주기를 청합니다.

2024 년 3 월 26 일 성주간 화요일

로마에서

총원장 아민타 사르미엔토 수녀